

해남군 “봄을 부르는 맛’ 겨울배추로 만든 새김치 아시나요?”



해남군은 23일 문내면 우수영 관광지에 새봄, 새김치 담그기 축제를 개최한다. 문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문내면 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남군 대

내일 우수영관광지에서 새봄 새김치 담그기 축제 문내면 31개 기관단체 추진위 구성...오전 10시부터

표 특산물인 겨울배추를 널리 알리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 겨울배추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해남군은 지난 2021년부터 새김치 담그기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김치냉장고 등이 흔하지 않던 시절, 남도 지방에서는 김장김치가 시어질 무렵에 겨울 배추로 새김치를 담가 입맛을 돋우고, 봄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던 김장문화가 이어져왔다. 겨울배추는 가을철 수확하는 김장배추와 달리 월동을 하고 12-1월 수확을 하기 때문

에 겨울배추 혹은 월동배추라고 부른다. 배추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일교차가 커지면서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변해 맛이 달고 부드러워진다. 특히 겨울배추는 추운겨울 성장하면서 조직이 치밀해 식감이 좋고, 미네랄이 풍부해 김치를 담가 놓으면 아삭하고 신선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겨울에도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만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남이 재배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해남겨울배추는 지난 2006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 등록 제11호로 지정되었다. 이번 축제는 겨울배추의 주산지인 문내면 31개 기관단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되는 민간 주도행사로 3,000여포기 겨울배추와 해남산 양념을 이용해 새김치를 담글 예정이다. 주민과 향우, 관광객 등 700여명이 참여해 김치를 버무리고, 지역내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게 된다. 축제에서는 기념식과 지역 농수산물의 전시·판매와 함께 우수영 들소리 공연 등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새봄, 새김치 담그기 축제는 문내면 우수영관광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관광객들도 현장에서 김치담그기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해남=김동취재본부

진도군, 국비확보 대응전략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정부 예산편성 과정 이해·국비사업 설명자료 작성요령 등...실무 교육



진도군이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비확보 대응전략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위해 기재부 출신 이선호 전남

전략, 사례연구 등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사례 위주로 구성된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선호 전남도청 예산총괄팀장은 ▲기재부 예산심 의 과정 ▲국회 심 의 과정 ▲사업의 당위성 부각 방법 ▲사전절차 이행 ▲사업 설명자료 작성 요령 ▲요구자인 지자체의 입장이 아닌 심 의자인 기재부 입장에서의 자료 준비 등 지자체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평소 기재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활발한 소통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정부의 국정과제나 정책방향 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으로 설득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우흥섭 진도부군수는 “계속해서 전남도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내년도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산불 예방 잔가지 파쇄기 운영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처리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 기대

장흥군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2. 1. ~ 5. 15.) 발생하는 대부분의 화재는 풍대, 고춧대를 포함한 영농 부산물과 잔가지의 소각과정에서 발생한다. 군은 산불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아름다운 자연과 산림을 보호

하기 위해 파쇄기를 통한 영농부산물 처리를 돕고 있다. 현재 장흥군 산림휴양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 인접지역의 경우 산림휴양과에서, 그 밖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를 지원한다. 파쇄기를 통해 처리된 영농부산물과 잔가지들은 재활용하여 퇴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서 유채꽃 물결 속 명품 청자 할인 쇼핑 해볼까

청자축제 내일 개막...내달 3일까지

강진군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제52회 강진청자축제'를 맞아 고려청자박물관이 '민간 도예 업체 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민간 도예업체 17개 업체가 참여해 23개 작품 69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전통문양을 응용한 식기세트, 청자를 이용한 소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머그컵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으며 각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청자 재현품을 생산하는 연구동에서 청자가 만들어지는 상형, 성형, 조각하는 과정을 관람할 수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이와 함께 군은 청자축제기간동안 명품 청자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제작한 관요 제품은 청자공동전시판매장에서 전 품목 30%, 민간 도예 업체가 제작한 민간요 제품은 명품 청자부스에서 업체별로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강진 청자축제장에서 노랑 유채꽃을 만나는 행운도 갖게 됐다. 강진군은 제52회 강진청자축제 개막에 맞춰 유채꽃이 개화되었다고 알렸다. 군은 온난한 남부 지역의 따뜻한 이른 봄 분위기와 함께 꽃이 있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축제 개최 때 고려청자박물관의 남쪽 지역에 유채종자를 뿌려 겨우내 관리를 통해 유채 생육을 도왔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